

사 설

국방장관의 세번째 사과

지난 3월부터 육군특수학교에서 일어난 해병사건은 광신적 행위였음이 속속 밝혀졌다. 일요법회가 없는 날이나 있는 날이나 불자후보생들은 무조건 교회로 인솔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어떤 때에는 하사관 후보생들을 일부 당직자들이 교회로 오라고 명령했다. 법당 주변에 분초차로 인분을 대량 살포하는 아만적 행위도 있었다. 수계식까지도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성한 신앙의 자유를 전면 박탈하기도 했다.

어찌 이런 일이 장로대통령 정권말기에까지 자꾸 일어나는가? 이번에는 더욱이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수인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비종교적 불교단입이 자행되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철저히 진상을 파헤치고 납득할만한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불교단입과 특정종교 편향정책은 뿌리가 뽑혀야 한다.

둘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종교정책을 즉시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군부대 안에서 벌어진 종교편향 사례를 철저히 밝혀내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나가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특정종교를 신장하는 정권의 책임자나 군간부들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종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는 분명한 범법행위이며 비도덕적 행위임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셋째, 현 정권이 불교계로부터 심한 불신을 받고 있음으로 신뢰회 회복을 위하여 깊은 참회와 함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종교편향정책으로 종교간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분열·국본분열의 씨앗이 된다.

이러한 정부의 과제를 수행함과 아울러 불교계에서도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군법사단은 군불자들의 교화와 포교에 좀더 철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포교의 문제점과 과제를 연구·검토하여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이에따라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과 함께 군중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법불교적 대책이 종단이 중심이 되고 불교관계 모든 단체들이 연대·협력하여 강구되어야 한다. 사실적으로 불교단입 감시기구가 가동될 수 있도록 재정과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각종 자문기구의 활성화와 함께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불자가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족문화유산인 삼보정재 불교를 수호하는데 정부당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

둘어보면 현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기독교 편향정책으로 불의를 일으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 해병사건·예배사건을 시발로 부활절 검정고시 일자연기, 공무원 시험일 변경, 불교를 비방하는 기독교를 찬양하며 역사를 왜곡시키는 교육내용이 담긴 검정고사제 책자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났다. 17사단 군법당 불상훼손사건과 국방부 대통령예배사건은 군당국에서 자행된 대표적 불교단입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의례적으로 특정종교 편향정책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정부당국은 '약속'했다. 국방장관의 사과를 통해 나왔던 이러한 '약속'은 자주 파괴되어 현 정권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이번에도 국방장관의 사과가 발표됐다. 그럼에도 불자들은 현 정권이 이러한 해병행위·불교단입을 중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불교계의 요구를 결렬히 받아들이고,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열린마당

조계종 사찰운영위

스님·신도 역할분담 장점 최대한 살려야

혜창 (조계종 총무부장)

사찰운영위원회는 종법인 사찰운영위원회법으로 명문화된 기구로 종단제도개혁의 산물이다. 그러나 개혁 3주년이 지났음에도 왜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 정착이란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시행해 온 것이다. 한가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준비, 시행, 점검, 평가, 정착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시행된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로 행정을 집행해 온 부분이 있다.

사찰운영위원회는 구성으로만 끝나서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찰의 신도회가 구성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을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에 앞서 사찰신도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사찰운영위원회 시행에 어려움이 겪어왔던 이유중에 하나는 제도적인 틀로서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스님들의 깊은 잠재의식이다. 지금까지 사찰 운영에 있어 스님중심의 운영방식이 굳어지면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집행하는 운영방법이 고착되어 있다.

점점 사찰이 지역사회에서 요구받고 있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지스님 1인의 능력으로는 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사찰의 많은 불사와 신도관리, 교육, 포교, 사회복지활동 등은 전문적인 역량이 부여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찰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찰은 재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종단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 스님들의 의식전환을 이루는 한편 우수운영사례를 발굴 보급하는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행 2년 제자리...징계등 종단지도 강화

법안 (조계종 총회의원)

개혁종단의 상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찰운영위원회법 신설이다. 이 제도는 승단의 운영에 신도들까지도 동참시켜 사찰제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동안 횡횡하던 일부 주지스님들의 전횡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법적 장치이다. 또한 사찰운영위원회는 급변하는 시대요청에 따른 특단의 조치였다. 이러한 시대변화에서 주지스님 혼자서 모든 사찰행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찰은 주지스님과 신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 사찰의 예·결산은 물론 모든 행정과 불사를 협의해 능률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종단의 취지는 날이 갈수록 유효무야되고 있어 안타깝다. 개혁종단 초기 각 사찰마다 활기를 띠었던 사찰운영위원회 조직은 점점 주춤

지고 있다. 현재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사찰이 20%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개혁의지의 상실로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은 스님들의 인식부족과 중무기관과의 지속적인 지도부재라고 생각된다. 개혁의 과제를 여법히 실천해야 할 종단과 중앙총회는 뒷짐을 지고 있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까지도 관습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총회는 중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사찰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도 지적하지 않고 이권에만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단도 마찬가지다. 종헌중심상에는 사찰운영위원회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음에도 한탄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사고과제라도 행정상의 징계를 강화해서라도 사찰운영위원회가 뿌리내리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모범운영사례-상주 남장사

사찰재산은 어느 누구의 개인 재산일 수 없다. 비록 당해 사찰의 주지라 하더라도 주지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일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찰이 운영되는 곳이 상주 남장사(주지 성용). 남장사는 사찰의 주체를 지역불자들이 보고 있다. 지역불자들은 어린시절부터 이곳에서 자랐고 높은 애사심(愛寺心)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장사는 이미 개혁의의 이전부터 현재의 사찰운영위원회와 비슷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당시 운영위원회는 총무부, 재무부등을 주축으로 신도들이 직접 사찰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예산과 결산, 불사등을 비롯 사찰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주지스님과 신도대표들이 논의하고 결정한다.

남장사의 이러한 공개종무행정은 신도들에게 신뢰감을 갖게 했다. 이로인해 모든 불사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 대표적 것이 신도회, 거사팀회, 화생회 등의 신행단체 창립이다. 신도들이 직접 창립

종무행정 재가참여로 신뢰 예산심의·불사등 '순조롭게'

한만큼 활동도 다른 사찰 못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다. 이밖에도 신도들은 방생법회, 일일차집 등의 행사를 통해 모아진 보시금을 장학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각종 보시행을 펼쳐 사찰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장사는 이같은 사찰운영조차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다. 물론 사찰운영이 신도들에게 맡겨짐에 따라 서류관리의 번거로움과 지속성 여부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찰운영의 능률화와 삼보정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찰운영위원회의 활동은 바람직하다는 것. 사찰운영위원회의 활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신심과 공심에서 우러나와 절 신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계종 사찰운영위원회는 종헌 중법상 명문화된 기구로 사찰마다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소속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명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사찰운영의 능률화 공명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 제도개혁의 산물이다. 그러나 사찰운영위원회는 개혁 3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재적사찰 1904곳 가운데 379곳만이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사찰운영위 현황과 문제점

조계종 개혁회의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것이 사찰운영의 공개화, 공명화였다. 이는 사부대중이 함께 사찰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 삼보정재를 투명함으로써 포교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위해 개혁회의는 95년 10월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제정, 공포했다. 사찰운영위원회는 예·결산을 비롯 모든 사찰운영을 주지스님과 신도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공명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공포된지 2년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천9백44개의 재적사찰 가운데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은 19.9%인 3백79곳에 머물고 있다. 특히 수덕사(68%), 지지사(64%) 화엄사(53.5%) 등 몇몇 교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미만에 불과하다. 심지어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본사도 있다. 이처럼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교구신도회 조직이 늦어졌고 운영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찰운영위원회는 7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이 가운데 신도회 회장과 부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신도회를 구성하지 못한 사찰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음을 당연한 이치인 셈이다.

재적사찰 1904곳중 379곳만 구성 종단 '정재 투명공개' 의지 상실위기 일부 스님 '무용론' 제기 등 인식부족

결국 교구신도회 조직미흡은 교구본사는 물론 각 말사까지 영향을 미쳐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저조는 불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신도회를 구성할 수 없는 소규모 사찰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은 요원할 뿐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조차 못한 현실이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즉 법적 조항만 마련했을 뿐 현실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둘째는 주지스님들의 인식부족이다. 일부 주지스님들의 입장은 사찰운영위원회가 조직될 경우 기득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십년간 직접 관리했던 사찰운영을 일반신도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사찰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 예산과 결산, 재산처분, 각종 불사와 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을 사찰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본말사주지연수회에서 몇몇 주지스님들이 '사찰운영위원회 무용론'을 제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규정대로라면 96년 4월까지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행정상 강력한 징계를 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주지 재임시 사찰운영위원회 구성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행정기관의 형평성 부재로 그나마 구성돼 있는 사찰운영위원회까지도 사정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난다.

결국 사찰신도회의 안정과 주지스님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당분간 사찰운영위원회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종근 기자

현 대 불 교

현대만평



이젠 스님들도...

737-8881

생활속의 불교 (128)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괴롭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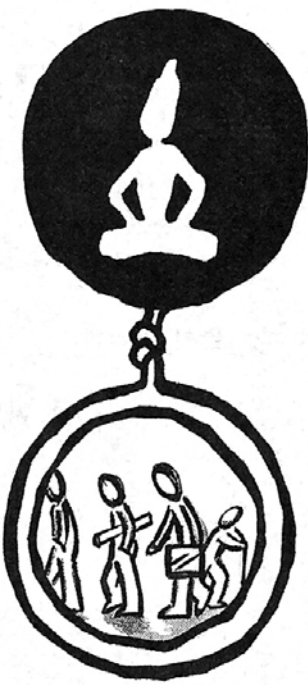
"우리는 노예가 되자고 태어난 게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심을 자기인 줄 알고 사랑심을 불독과 육신과 더불어 이등바등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나' 말고 진정한 나주인공이 나의 근본임에도 그 근본을 제쳐두고 거짓 나를 참나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자나깨나, 평생을 다 기울여 나의 이기심, 나의 자만심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끝없는 탈바꿈의 바퀴들이 속에서 야성과 탐진치 삼독심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싹이 터서 자라난다. 자라서 다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다시 심어 키우면 또 열매가 맺힌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심고 키우면 자라난다. 자라난 마음은 다시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의식세계에 무수한 기억을 만들어 내고 그 기억들은 다시 또 기억을 쌓아간다. 그런 과정은 언제 어디까지 비롯되었는지 시작을 알 수도 없고 어디까지 이어져 갈는지 그 끝을 알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도 그저 그 것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대상(色)과 눈을 통해, 또는 귀를 통해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상념에 사로잡힌다. 분별과 사랑에 의한 욕망이 깃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욕망은 대개의 경우 기쁨·만족·쾌락·사랑·홍분·분노·두려움 등의 감정을 낳는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불집이 두려워하거나 혹은 벗어나려는 행위를 하게 된다. 집착이 생기는 것이다. 일단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거기에 얽매어서 갈고 만든다.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이런 저런 욕심을 일으킨 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가두고 나의 발목을 잡는다.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나를 색의 노예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려면 바라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욕망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재난의 씨앗에 불과하다. 내 속에 뿌려져 거기서 싹이 트고 나의 이기심을 몰로, 나의 자만심을 거름으로 삼아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다시 또 씨앗이 되어 더욱 무성하게 자라난다.

따라서 자유인이 되려면 재난의 씨앗을 흐트러 버릴 뿐 그것을 모으려해서는 안된다. 버리고 덮어 버릴 뿐 쌓으려 해서는 안된다. 버리고 덮어 버릴 뿐 쌓으려 해서는 안된다. 버리고 덮어 버릴 뿐 쌓으려 해서는 안된다. 버리고 덮어 버릴 뿐 쌓으려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려면 바라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욕망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재난의 씨앗에 불과하다. 내 속에 뿌려져 거기서 싹이 트고 나의 이기심을 몰로, 나의 자만심을 거름으로 삼아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다시 또 씨앗이 되어 더욱 무성하게 자라난다.

따라서 자유인이 되려면 재난의 씨앗을 흐트러 버릴 뿐 그것을 모으려해서는 안된다. 버리고 덮어 버릴 뿐 쌓으려 해서는 안된다. 버리고 덮어 버릴 뿐 쌓으려 해서는 안된다. 버리고 덮어 버릴 뿐 쌓으려 해서는 안된다.

불써 자체를 없애야 하듯이 바라는 마음을 지우고 덮어내야 한다. 그것이 불자다운 바른 수행이다. 바른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만족을 좇고 기쁨을 좇고 집착하고 탐진하고 애착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의 쌓임은 바로 윤회의 원동력이 된다.

그것은 마치 꺼지지 않은 불씨와 같아서 육신이 떨어진 후에도 다른 쉼으로 옮겨 불게 된다. 마침내 과보가 다하여 소멸할 때까지 바뀌어가는 계속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를 사랑한다면 거짓 나의 윤회놀음을 부정하고 본래로 밝은 그 자체인 참나로 귀의해야 한다.

바람 대상에 불들려 거기서 자라나는 마음을 안으로 건어들어 온갖 망념의 뿌리-자만심 이기심을 지우고 덮어내야 한다. 거짓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애착이 없고 애착이 사라지면 고뇌도 사라진다. 구속과 부자유도 사라진다.

협찬: 이형선